

남과 북의 사전

한용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실장

1. 사전,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

우리 겨레는 남북으로 갈라져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67년을 교류 없이 지냈다. 그 결과 남북의 겨레는 사유 방식이나 생활 방식 등 여러 면에서 작지 않은 차이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언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로 비유될 만큼 언어에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시대상이나 사회상이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1) 2010년 남녘에서 태어난 김철수

어머니가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어 철수는 만 1세부터 3년간 '어린이집'에서 보살핌을 받았다. 올해 '유치원'에 입학하였고, 2017년에는 6년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된다. 2023년에 3년제 '중학교'에 입학하고, 2026년에 3년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 동안은 '의무 교육' 기간이다. 만약 철수가 공부에 소질이 있다면 만 18세가 되는 2029년에 곧장 대학에 진학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재수'를 하거나 21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될 것이다.

(2) 2010년 북녘에서 태어난 김철수

어머니가 ‘기업소’에 다니고 있어 철수는 만 1세부터 3년 간 그 기업소에서 운영하는 ‘탁아소’에서 보살핌을 받았다. 올해 2년제 ‘유치원’에 입학하여 현재 ‘낮은 반’에 다니고 있으며, 2017년에 5년제 ‘소학교’에 다니게 된다. 2022년에는 3년제 ‘초급중학교’에 입학하고, 2025년에는 3년제 ‘고급중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이다. 유치원 ‘높은 반’ 1년을 포함하여 12년 동안 국가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만약 철수가 공부에 소질이 있다면 만 17세가 되는 2028년에 곧장 대학에 진학하는 ‘직통생’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군대나 직장에 배치될 것이다. ‘재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곧장 입대할 경우 27세까지 10년 동안 ‘군복무’를 하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의 김철수는 앞으로 얼마나 다른 낱말을 쓰면서 살게 될까?¹⁾

이 글에서는 분단 이후 남과 북에서 각기 간행된 사전들을 간략히 개관한 후, 대표적으로 남측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북측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편찬한 《조선말대사전 증보판》(2006)을 비교하여 남북의 어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1), (2)에서 ‘ ’로 표시한 낱말은 남과 북의 어느 한쪽에서만 쓰이는 낱말이거나, 남북에서 함께 쓰더라도 의미에 차이가 있는 낱말들이다.

2. 남과 북의 사전

우리말 표제어에 우리말 풀이를 시도한 최초의 사전은 조선광문회의 《말모이》(1911, 미간)²⁾이다. 주시경, 김두봉, 권덕규 등이 주축이 되어 1911년부터 편찬하던 사전인데, 안타깝게도 책으로는 출판되지 못했다(이병근 2000: 83~110). 1911년은 한일병합조약(1910)으로 국권을 잃은 다음 해였다. 그 시기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 조선어에 일본어 뜻풀이를 보인《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 편찬을 시작했고, 조선광문회에서는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말모이》 편찬 작업을 시작했다는 점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1925년에 드디어 우리말 표제어에 우리말 풀이를 한 최초의 국어사전인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을 심의린이 출판했다. 이 사전은 일제강점기의 보통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 사전으로 6,106개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한자 자전이 붙어 있다(박형익 2005 참조).³⁾

이후 1938년 문세영이 《조선어사전》을 간행했다. 이 사전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표기법을 따른 최초의 사전이며, 약 10만 개의 어휘를 수록하였다.⁴⁾ 문세영은 이 사전을 바탕으로 하여 《수정 증보

2) '말모이' 원고를 보면 동사나 형용사 표제어에 기본형 어미 '-다'를 붙이지 않았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예: **까다롭(으)** ㉠사람이술술하지못함 ㉡일이아릿하게어렵음.

3) 이 사전에서는 용언의 기본형이 아닌, 그 활용형을 표제어로 수록하고 있다.
예: **주무십시오寢** 寢 ㅅ 자라는말의尊對.

4) 이 사전에서는 동사나 형용사에 기본형 어미 '-다'를 붙여 수록하였고, 풀이 항에서 불규칙 용언의 활용형을 제시하였으며, 〈한글맞춤법통일안〉(1933) 띄어쓰기 규범을 최초로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예: **까다롭다(바변)**-로워. -로운(形) ㉠엄하다. ㉡너그럽지 못하다. ㉢편협하다. ㉣이상

조선어사전》(1939), 《중등 조선어사전》(1948), 《순전한 우리말 사전》(1951) 등 여러 사전을 편찬하였다.

한편, 조선어사전편찬회에서 1929년에 사전 편찬에 착수하였다. 초기에는 조선어학회에서 '맞춤법'과 '표준말' 등의 기초 공사를 맡고, 조선어사전편찬회에서는 낱말을 모아 그 뜻을 밝히는 체제로 나뉘었지만, 훗날 조선어학회가 사전 편찬회 사업도 넘겨받게 되었다(《큰사전》 머리말 참조). 이 사전은 이극로, 이윤재, 이중화, 한징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42년에 초고가 완성되어 출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선어학회 사건(1942)이 터져 편찬자들이 투옥되고 수십만 장의 사전 원고를 일본 경찰에 빼앗기면서 간행되지 못했다. 해방 이후 천신만고 끝에 사전 원고를 찾아 1947년에 《조선말큰사전》 1권을 간행했으나, 얼마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진전이 없다가 1957년에 마침내 한글학회에서 전 6권으로 완간하였다. 이름도 《큰사전》으로 바뀌었다.⁵⁾

《큰사전》(1929~1957)은 우리 겨레가 대사전⁶⁾ 규모로 편찬한 첫

하다. ⑤성질이 쌀쌀하다.

5) 《조선말큰사전》 1권 출판 이후 완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을 예측한 김병제는 우리말 교육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소사전을 출판하였다. 《표준조선말 사전》(1947)이 그것인데, 이윤재의 집필 원고를 사위인 김병제가 엮은 사전이다. 이 사전은 《조선말큰사전(큰사전)》이 완간되기까지 실질적인 규범 사전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김병제는 이극로와 함께 월북하여 북의 《조선말대사전》(1960~1962)의 완간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6) 대사전(unabridged dictionary)은 일반어(一般語) 이외에 전문 용어나 신어(新語), 방언(方言), 속어(俗語) 등을 가능한 한 폭넓게 표제어로 등재함으로써 한 언어 어휘의 총체를 기술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전이다. 일반적으로 '대사전' 또는 '큰사전'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한글학회의 《큰사전》과 구분하기 위해 '대사전'으로 부르기로 한다.

번째 사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큰사전》 머리말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제 말의 사전을 가지지 못한 것은 문화 민족의 커다란 수치일 뿐 아니라, 민족 자체의 문화 향상을 꾀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아, 이 수치를 씻고자, 우리 문화 향상의 밑천을 장만하고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조선말 사전의 편찬 사업을 처음으로 계획한 것은 융희 4(1910)년부터의 일이었으니, 당시 조선 광문회에서 이 일을 착수하여, 수년 동안 재료 작성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중략) 이 책이 다만 앞사람의 유산을 찾는 도움이 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는 민족 문화를 창조하는 활동의 이로운 연장이 되며, 또 그 창조된 문화재를 거두어 들여, 앞으로 자꾸 충실히 가는 보배로운 곳집이 되기를 바라 말지 아니한다. ……”

2.1. 남측의 사전

남측 대사전의 시초는 한글학회(조선어학회)의《큰사전》(1929~1957)이다. 16만여 개의 표제어를 수록하였다. 분단 이후 남측에서는 이 사전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대사전들이 간행되었다. 남측에서 편찬된 대사전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⁷⁾

《큰사전》 출판 이후, 남측에서 비교적 널리 사용된 대사전으로는 민중서관에서 출간한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1961)이 있다. 대사

7) 남측의 경우 상업용 소사전과 중사전 편찬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방언사전·속담사전·전문용어사전 등의 선별형 사전들도 많이 출판되었다. 지면 관계상 다 소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전으로서는 최초의 상업 사전이었고,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 1961년 초 판이 발행될 당시 20만여 개의 표제어를 수록하였는데, 1991년의 수정 증보판에서는 35만여 어휘를 수록하였다. 표제어로 일반어 외에 전문어를 폭넓게 수록하였으며, 인명과 지명 등의 고유 명사도 널리 수록하였다. 특히 1991년 간행한 증보판에서는 부록으로 ‘북한말 모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삼성출판사의 《새 우리말 큰사전》(1974)은 신기철·신용철 형제가 편찬한 사전이다. 일반어 외에도 전문어, 인명, 지명 등 32만여 개의 어휘를 두루 수록한 대사전이다. 표제어 수에서 1970년대 최대 규모 사전이었다.

한편, 1988년에 〈한글 맞춤법〉이 고시되면서 국어 대사전은 일대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된다. 이 시기는 1990년대로 이어지는, 사전 편찬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세기말’이었고,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사전 편찬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의 문제도 상당히 해소된 시기였다. 또한 사전 편찬이 ‘사전편찬학’이라는 전문 연구 분야로도 정착되기 시작한, 사전 편찬에 필요한 대부분의 요건들이 갖추어진 최상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간행된 대사전으로는 금성출판사의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과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1992) 그리고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이 있다.

금성출판사에서 간행한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편 《국어대사전》은 34만여 개의 표제어를 수록하였는데 일반어 외에 고어, 전문어, 인명, 지명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3,000개 정도의 북한어를 수록하였으며, 1988년에 개정된 어문 규범을 반영한 첫 대사전이었다.

어문각에서 간행한 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은 44만여 표제어를 수록하였는데,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를 대폭 정리하고 고유어를

최대한 보충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사라져 가는 남북한 전역의 방언을 발굴하여 수록하고, 인명이나 지명을 표제어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고어를 별책으로 제시한 점 등이 특징이다.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1999)은 분단 이후 정부 주도로 편찬된 첫 대사전이다. 1988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의 어문 규범을 철저히 반영하여 국어 생활의 기준을 확립하고자 편찬했다. 일반어 및 북한어, 방언, 옛말 등 50여 만 단어를 수록하여 표제어 수에서도 국내 최대 규모다. 종이 사전 간행 이후 시디롬으로 제작·배포하였으며, 또한 사전 편찬 지침을 공개하여 국내 사전 편찬과 사전학 연구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는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해 새로운 지식, 문화 생산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100만 어휘 수록을 목표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전은 웹 사전 형식으로 서비스될 예정인데,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제한적이거나 사용자들에게 표제어의 수록 및 뜻풀이 수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은 38만여 표제어를 수록하였는데, 대학교에서 편찬한 첫 대사전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1억 어절 규모의 한국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하여 표제어를 선별하였고, 기존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어휘 4만여 개를 새로 수록하였다. 또한 표제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국어의 다양한 조어 양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남측의 국어 대사전을 대강 추려 살펴보았다. 남측의 대사전은 모두 《큰사전》의 바탕 위에서 점차 표제어 수를 늘리고 뜻풀이를 깊고 더한 사전이라 할 수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에서 출판된 사전임을 알 수 있다.

2.2. 북측의 사전

남측에 비해 북측은 정부 기관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⁸⁾ 주도로 사전을 편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 주도로만 사전을 편찬하였으므로 남측에 비해 대사전은 많지 않다. 북측의 주요 ‘뜻풀이 사전’⁹⁾을 출판 연도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어소사전》(1956)은 분단 이후 북측에서 출판한 첫 번째 뜻풀이 사전으로 4만 1,927개의 표제어를 수록하였다. 특히 1954년에 새로 제정한 〈조선어철자법〉이 반영된 첫 규범 사전이기도 하다.¹⁰⁾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2005: 57)에서는 이 사전의 편찬 목적을 “현대조선어의 근간적인 어휘만을 반영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으면서 단어들의 정확한 사용, 정확한 발음 및 정확한 표기에 관한 지식을 알려 주는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8)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전신은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이다. 1964년에 ‘과학원 이사회과학원’으로 개편되면서 예전의 ‘언어문학연구소’는 ‘언어학연구소’와 ‘문학연구소’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1964년 이전에 편찬된 《조선어소사전》(1956)과 《조선말사전》(1960~1962)은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이름으로 편찬되었고, 그 이후의 사전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이름으로 편찬되었다.

9)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2005: 18~21)에 따르면, 사전은 ‘백과전서적 사전’과 ‘언어학적 사전’으로 나뉜다. ‘백과전서적 사전’은 표제어가 지시하는 인물, 대상, 현상, 사건 등을 설명하고 특징짓는 사전이고(예: 백과사전, 경제 사전, 철학 사전 등), ‘언어학적 사전’은 어휘와 그 뜻을 설명하고 풀이하는 사전을 가리킨다(예: 뜻풀이 사전, 방언사전, 속담 사전 등). ‘뜻풀이 사전’은 ‘언어학적 사전’에 속하는 유형으로, 어휘의 뜻을 풀이 기 본으로 하면서 ‘언어 행위 속에서의 사용’, ‘규범적인 것과 비규범적인 것의 구별’, ‘표기와 발음’ 등을 밝혀 제시하는 데 편찬 목적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10) 분단 이후 남측에서는 두 차례 표기 규범 개정(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58)과 〈한글 맞춤법〉(1988)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북측에서는 네 차례의 표기 규범 개정 작업(조선어신철자법)(1948), 〈조선어철자법〉(1954), 〈조선말규범집〉(1966), 〈조선말규범집〉(1988)을 거치면서 여러 면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규범과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조선말사전》(1960~1962)은 총 6권으로 간행되었으며, 표제어는 18만 7,137개이다. 19세기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각종 출판물에 쓰인 어휘를 폭넓게 수록하였고, 고어와 방언도 수록하였다.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2005: 59)에서는 이 사전에 대해 “높은 사상성과 함께 과학성과 체계성, 규범성이 확고히 보장된 뜻풀이 사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사전은 《큰사전》 편찬에 참여했던 월북 언어학자들의 주도로 편찬되었다는 점과 이후 북측 사전 편찬의 바탕이 된 사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조선말사전》(1968)은 5만여 개의 표제어를 수록한 규범 사전이다. 특히 1966년에 제정된 〈조선말규범집〉의 조항을 적용한 첫 사전이다. 이 사전에는 ‘고유어와 이중 체계를 이루는 한자말’, ‘새로 다듬어진 한자말’ 등의 한자어가 표제어에서 대폭 제외되었으며, 새로 선정한 문화어 어휘 3,300개가 수록되었다.

《조선문화어사전》(1973)은 《현대조선말사전》(1968)을 보완한 사전으로 6만 7,480개의 표제어를 수록한 규범 사전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대대적으로 시행한 ‘어휘정리사업’¹¹⁾의 결과를 폭넓게 반영한 사전이다.

《현대조선말사전 제2판》(1981)은 13만 6,315개의 표제어를 수록한 규범 사전이다.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2005: 64~64)에서는

11) ‘어휘정리사업’은 김일성의 두 담화문, 즉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1964)와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1966)를 발표한 이후에 대대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문화어건설이론》(2005: 77)에 따르면, “단어체계를…… 고유어에 근거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의 어휘를 다듬는데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어휘체계 전반에 걸쳐 동시에 혁명적으로 어휘정리사업을 밀고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여, ‘어휘정리사업’이 ‘어휘정화사업’과는 달리 어휘 체계 전반에 걸친 사업임을 표명하고 있다.

이 사전을 뜻풀이 사전 편찬에서 지켜야 할 ‘주체성’, ‘당성’, ‘노동 계급성’, ‘인민성’, ‘규범성’ 등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진 사전이라 평가하고 있다. 북측에서 간행된 이전의 사전에 비해 사회 정치 용어들과 고유어들이 폭넓게 수록되었고, 인민의 언어생활에서 생겨난 변화와 발전을 반영한 어휘, 방언에서 찾아낸 좋은 말, 어휘 정리 과정에서 새로 다듬어진 말 등도 많이 수록되었다.

《한자말사전》(1989)은 옛 문헌과 중국 서적을 볼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편찬한 사전이다. 약 9만 개의 한자어를 표제어로 수록하였다. 분단 이후 북측에서는 ‘한자어’, ‘외래어’, ‘낡은 말과 비문화적인 말’에 대한 ‘어휘정리사업’을 벌여, 많은 한자어들이 사전의 표제어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옛 문헌의 한자어나 중국 서적의 한자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전이 필요하게 되어 이 사전을 편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으로 이 사전은 부록에서 8,000개의 한자를 획순과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그 음과 훈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조선말대사전》(1992)은 33만여 개의 표제어를 수록한 대사전이다. 1987년에 개정된 〈조선말규범집〉의 규범을 반영한 사전이다. 정부 수립 이후에 사정한 문화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어와 고어 등을 대폭 수록하였다. 1만 5,000여 개의 성구·속담, 1만 2,000여 개의 본판말, 5만 2,000여 개의 학술 용어와 전문 기술 용어, 그리고 9,000여 개의 방언, 1만 5,500여 개의 고어를 수록하였다. 《조선말사전》(1962) 이후 다루지 않았던 고어(1만 5,500여 개)와 이두를 부록으로 다루었고, 방언도 부록으로 비교적 많이 수록하고 있다. 고유 명사 가운데 지명은 널리 수록했지만 인명을 수록하지 않은 점이 남측 대사전과 다른 점이다.

《조선말사전》(2004)은 15만 3,500여 개의 표제어를 수록한 중사전 규모의 뜻풀이 사전이다. 머리말에 따르면 《조선말대사전》(1992)

편찬 이후 새로 생겨난 어휘를 수록하고, 근로자와 청소년들의 언어문화적 소양을 높일 목적으로 편찬하였다.

《조선말대사전 증보판》(2006)은 《조선말대사전》(1992)을 증보한 사전으로 약 40만 개¹²⁾의 표제어를 수록했다.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를 깊고 더하였고, 새말들을 찾아 표제어로 수록하였다.

이상으로 북측의 뜻풀이 사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북측 사전은 《조선말사전》(1960~1962)의 바탕 위에서 편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남측과 달리 모두 정부 주도로 편찬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3. 남북 사전의 표제어 비교

남북의 어휘 체계에 차이가 생긴 주된 원인은 ‘사회 체제’와 ‘언어 정책’의 차이에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재수생……(남)/소학교, 직통생……(북)’ 등의 낱말은 남과 북의 교육 체제 차이에 따라 각기 생성된 낱말들이고, ‘무허가업소, 간접소비세……(남)/추진죄, 교화로동……(북)’ 등의 낱말은 남과 북의 법 체제 차이에 따라 각기 생성된 낱말들이다.

언어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거머리(남)/거마리(북), 거위(남)/게사니(북)’처럼 ‘규범어 설정 지역의 차이’¹³⁾에서 비롯된 것이

12) 북측에서는 남측과 달리 ‘속담’과 ‘성구(관용구)’를 표제어 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약 40만 개’라는 통계에는 속담(1만 5,347개)과 성구(1,390개) 수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속담과 성구를 더한 총 표제어 수는 36만 9,680개이다.

13) 남측은 서울말을 중심으로 규범어를 정하였고, 북측은 평양 말을 중심으로 규범어를 정하였다.

있고, ‘노안(남)/늙은눈(북)’처럼 ‘언어 순화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있다. 또한 ‘양심(남)/량심(북), 깃발(남)/기발(북)’처럼 ‘표기법 차이’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

분단 이후 남측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휘 체계 변화를 대대적으로 시도한 적이 없다. 이에 비해 북측에서는 분단 이후 여러 언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48년부터 1949년까지 ‘한자말정리사업’과 ‘한자사용폐지사업’을 벌였고,¹⁴⁾ 아울러 일제 강점기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어휘정화사업’¹⁵⁾도 벌였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어휘정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의사소통을 어렵게 했던 ‘일본어’와 ‘어려운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많이 순화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어휘 체계를 변화시켜 남북의 어휘 이질화가 심화되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과《조선말대사전 증보판》(2006)의 표제어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¹⁶⁾

14) 한자말을 모두 고유어로 순화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문화어건설이론》(2005: 79~85)에 따르면, “한자말과 외래어라고 하여 무턱대고 다 정리하는 좌경적편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휘정리원칙을 철저히 세웠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 예로 ‘지하투쟁’을 ‘땅속투쟁’으로, ‘중앙공업’을 ‘가운데공업’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검증이 되는데, 분단 이후 생성된 북측 낱말(《조선말대사전 증보판》에만 등재된 표제어)을 검토해 보면 전체(13만 8,472개) 대비 39%가 한자어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어려운 한자어를 정리한 것이지 모든 한자어를 고유어로 순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조선문화어건설이론》(2005: 70~76)에 따르면, 어휘정화사업의 목표는 ‘어려운 한자 어휘와 표현 및 불필요한 외래어를 대담하게 정리하여 버리는 것’이었다. 이 사업의 결과물로 <일반 및 학술용어통일안(초안)>이 간행되었는데, 22개 분과 용어 중에서 6,000여 개를 정화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표 1] 남북 사전의 표제어 비교¹⁷⁾

(단위: 개)

		《표준국어대사전》 (1999)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2006)
표제어	주표제어	437,865 (북한어 66,460개 포함)	313,198
	부표제어	68,411	39,745
	계	506,276	352,943
한쪽 사전에만 있는 말		228,474	138,472

《표대》의 총 표제어 수는 50만 6,276개인데, 이 중 ‘북한어’ 6만 6,460개를 제외한 43만 9,816개의 표제어가 남측에서 쓰이는 낱말이다.¹⁸⁾ 43만 9,816개의 표제어 가운데 남측 사전에만 수록된 표제어는 22만 8,474개로, 전체 표제어 수(43만 9,816개) 대비 51.9%에 이른다.

16) 이 두 사전은 남과 북의 정부에서 가장 최근에 편찬한 사전이고, 표제어 또한 최대로 수록한 사전이어서 남북 어휘 차이의 구체적 현황을 밝히기에 적합하다. 앞으로 편의상 《표준국어대사전》(1999)은 《표대》로, 《조선말대사전 증보판》(2006)은 《조대》로 줄여 일컫기로 한다.

17) 이 글에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구축해 놓은 《표대》와 《조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통계를 냈다. 이운영(2002: 36)에 따르면 《표대》의 총 표제어 수는 50만 9,076개인데, 이는 [표 1]에서 제시한 수치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품사 통용어나 다의어 등의 통계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어를 예로 들면 이운영(2002)에서는 7만 2,063개의 표제어를 북한어로 보았는데 여기에는 ‘북한어를 포함하고 있는 다의어(가랑비: ① 가늘게 내리는 비. …… ② 『북한어』가랑가랑 맺힌 눈물…….)’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표 1]에서는 ‘남측 뜻풀이가 전혀 없는 표제어’만을 북한어로 보았기 때문에 이운영(2002)의 통계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편 《조대》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니어서 통계에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오차는 이 글의 논의 전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18) 《표대》에는 ‘북한어’를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어’는 ‘남측 낱말’이 아니므로, 남북 표제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남북의 사전 표제어만을 비교 대상으로 한다면, 북측에서는 52% 정도의 남측 낱말을 모르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조대》의 총 표제어 수는 35만 2,943개이다.¹⁹⁾ 이 가운데 북측 사전에만 수록된 표제어는 13만 8,472개로, 전체 대비 39.2%에 이른다. 남북의 사전 표제어만을 비교 대상으로 한다면, 남측 사람들은 39% 정도의 북측 낱말을 모르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표대》와 《조대》에만 각기 등재된 표제어를 유형별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대》의 일반어 총 개수는 21만 7,035개이다.²⁰⁾ 이 중 《표대》에만 등재된 일반어는 7만 5,635개이다. 그리고 《조대》의 일반어 총 개수는 27만 1,860개이다. 이 중 《조대》에만 등재된 일반어는 10만 1,247개이다.²¹⁾ 《표대》의 일반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65.1%가 《조대》 일반어와 동일하고, 《조대》의 일반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62.7%가 《표대》 일반어와 동일하다.

《표대》에만 있는 일반어 가운데 고유어로는 ‘군걱정(←杞憂), 말맛(←〈프〉nuance)……’처럼 외래어를 정책적으로 순화한 예도 있지만, ‘달동네, 뜰잠, 숯불갈비……’처럼 사회상이 반영되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낱말들이 대부분이다. 한자어로는 ‘만화방(漫畵房), 배낭여행(背囊旅行)……’ 등이 있으며, ‘룸메이트(roommate), 리더십(leadership)……’처럼 영어권 외래어가 직접 유입된 낱말도 있고, ‘네글리제(〈프〉

19) 《표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를 내기 위하여, ‘속담’과 ‘성구’를 표제어에서 제외하였다.

20) 《표대》에 수록된 ‘전문어’, ‘지역어’, ‘은어’, ‘고어’를 제외한 수치이다.

21) 《조대》에만 수록된 일반어가 더 많은데, 이는 《표대》에서 전문어로 분류하고 있는 ‘정치 용어’, ‘동식물 용어’ 등을 《조대》에서는 일반어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표대》와 《조대》 어느 한쪽 사전에만 등재된 표제어의 유형별 분류
(단위: 개)

분류	사전	《표대》에만		《조대》에만	
일반어		75,635		101,247	
		고유어	15,801	고유어	34,997
		한자어	35,309	한자어	35,284
		외래어	2,022	외래어	533
		혼종어 ²²⁾	17,870	혼종어	28,506
		비규범어	4,633	비규범어	1,927
전문어		126,232		25,726	
		고유어	7,663	고유어	3,052
		한자어	75,810	한자어	12,783
		외래어	18,267	외래어	753
		혼종어	22,672	혼종어	9,138
		비규범어	1,820	비규범어	0
지역어		17,131		4,405	
글체				43(한자어 37)	
말체				625(한자어 83)	
낱은말 ²³⁾				5,813(한자어 5,783)	
가표제어 ²⁴⁾				170(한자어 60)	
은어		454			
옛말(고어)		9,022		443	
계		228,474		138,472	

22) 이 글에서 혼종어(混種語, hybrid word)는 ‘고유어+한자어’, ‘고유어+외래어’, ‘한자어+외래어’ 등 ‘둘 이상의 언어권 낱말(또는 형태소)이 결합한 복합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남북의 신어에서 혼종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이 글에서는 ‘혼종어’를 따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négligé), 미네젱거(〈독〉Minnesänger)……’처럼 비영어권 외래어가 직접 유입된 낱말도 있다. 또한 ‘빠꾸(〈일〉bakku < 〈영〉 back), 공구리(〈일〉konkurito < 〈영〉concrete)……’처럼 일본을 거쳐 들어온 외래어도 상당수 있다. 한편, 《표대》에만 등재된 일반어 가운데 혼종어로는 ‘얼음냉수(--冷水), 연잎쌈(蓮-)……’처럼 ‘고유어+한자어 / 한자어+ 고유어’ 구성도 있고, ‘다이내믹하다(dynamic--), 루스하다(loose--)……’처럼 ‘영어+고유어’ 구성도 있으며, ‘가두데모(街頭+〈영〉 demonstration), 가십난(gossip欄)……’처럼 ‘한자어+영어 / 영어+ 한자어’ 구성도 있다. 비규범어로는 ‘게으름장이(→게으름쟁이), 곡간(→곶간)……’ 등이 수록되었는데, 이들은 표기 규범에는 위배되지만 언중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낱말들이다.

《조대》에만 등재된 일반어의 총수는 10만 1,247개이다. 이 가운데 고유어는 3만 4,997개로, 일반어의 총수 대비 34.6%의 비중을 차지한다. 《표대》에 비해 고유어 비중이 14% 이상 높다. 이는 1946년 이후 ‘한자말정리사업’과 ‘어휘정화사업’ 및 ‘어휘정리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남측에 비해 ‘정책적으로 순화한 고유어’가 많아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자어나 외래어를 정책적으로 순화한 ‘먹는물(←음료수), 먼거리(←원거리), 손기척(←노크)……’과 같은 고유어들이 있고, ‘긴숨, 범벅이말, 늦은겨울……’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고유어들도 있다. 한편 《조대》에만 등재된 일반어에는 ‘다리힘, 새세상, 먹는물,

23) 《조대》에 ‘낡은말’은 ‘현대성을 잃고 이미 낡아서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어휘 부류’로 정의되어 있다.

24) 《조대》에서는 ‘비에뜨의 공식’, ‘서울에서 뽀맏고 안성고개 가서 주먹질한다’와 같은 ‘구(句)’나 ‘속담’을 수록하기 위해 고유명사 ‘비에뜨’, ‘안성고개’ 등을 표제어로 등재하였다. 이런 표제어에는 뜻풀이를 제시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가표제어’로 명명하였다.

먼길……’처럼 남측 기준으로 보면 ‘구(句)로 볼 수 있는 표제어’가 많이 있다.²⁵⁾ 또한 남측 기준으로 보면 ‘전문어로 볼 수 있는 표제어’도 일반어로 많이 수록되었는데, ‘정치 전문어’로 볼 수 있는 ‘붉은기, 혁명사상……’, ‘식물 전문어’로 볼 수 있는 ‘노란자라버섯, 유향나무……’ 등의 낱말이 그러한 예이다. 이는 남북 전문 영역 설정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북의 어휘 차이는 일반어에서보다 전문어에서 더 심각하다. 67년의 세월 동안 전문가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 언어 정책 면에서 남측은 외래 전문어에 대해 적극적인 순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반면 북측은 적극적으로 순화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대》의 전문어 총수는 19만 2,208개인데, 《조대》의 전문어보다 14만 9,129개 더 많다. 그리고 《표대》에만 등재된 전문어는 12만 6,232개이고, 《조대》에만 등재된 전문어는 2만 5,726개이다. 《조대》에 비해 《표대》에만 등재된 전문어가 약 5배 더 많다. 남측 전문어 총수(19만 2,208) 대비 65.7%가 남측에서만 쓰이는 전문어이다. 이 수치에 따르면 남북의 영역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예를 들어 10개의 단어를 말하면 3.5개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표대》에만 등재된 지역어는 1만 7,131개가 있고, 《조대》에만 등재된 지역어는 4,405개가 있다. 그리고 ‘글체’, ‘말체’, ‘납은말’, ‘가표

25) ‘구(句)로 볼 수 있는 형식’이 표제어로 등재된 데에는 ‘복측 띄어쓰기 규정’과 관련이 있다. 북측 규범에 따르면 ‘물고기잡이전투, 단행본권집월’처럼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지는 덩이’는 붙여 쓰므로 이러한 구 단위가 표제어로 많이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제어'는 《조대》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분류이다. 《조대》에만 등재된 표제어 중에는 5,813개의 낱은말이 있는데, 이 가운데 5,783개가 한자어이다. 《조대》에 등재된 낱은말의 총수는 2만 5,409개이며, 이 가운데 한자어는 2만 3,144개로, 낱은말 총수 대비 91%에 이른다. 이처럼 낱은말에 한자어가 많이 포함된 것은 북측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한 '한자말정리사업'과 '어휘정화사업' 등의 영향일 것으로 짐작된다. '은어'는 《표대》에만 있는 분류이다. '고어/옛말'은 두 사전 모두 등재하고 있다.

4. 맺음말

2027년까지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북녘 철수는 남녘 철수에 비해 1년 빠른, 만 17세에 대학에 입학하거나 군대 또는 직장에 배치될 것이다. 그리고 북녘 철수는 남북 교육 체제의 차이로 남녘 철수와 다른 교과목과 학술 용어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즉, 남녘의 '한국사'를 '조선력사'로, '한글'을 '조선글자'로, '폴란드'를 '뿔스카'로, '합병증'을 '따라난 병' 등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변수를 제외하고 단지 남과 북의 사전 표제어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북녘 철수는 남녘말의 52% 정도를 모를 것이고, 남녘 철수는 북녘말의 39% 정도를 모르게 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남북의 철수가 동일 분야 전문가로서 만나게 될 경우이다. 이 경우 상대측 전문가 가운데 66% 정도를 모르는 상황이 될 것이다. 물론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언어 통일을 위한 준비가 착실히 이루어진다면 이 수치는 줄어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수치보다 늘어날 것이다.

현재 남측에서는 북측 사전을 참조할 수 없고, 북측에서는 남측 사전을 참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단된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남북의 겨레가 함께 볼 수 있는 사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재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편찬하고 있는 사전이 《겨레말큰사전》이다.²⁶⁾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편찬하고, 남북의 겨레가 함께 이용하게 될 첫 대사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남북의 어휘 이질화는 오랜 기간 진행돼 온 것이고, 또한 그 차이가 사회 체제와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하루아침에 극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독일처럼 체제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언어 통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독한 일제 강점기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을 미리 준비하고, 아울러 《큰사전》 편찬 작업을 하여 광복 후 우리 어문 생활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다시 한번 통일 시대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나하나 해 두어야 할 것이다.

26) 《겨레말큰사전》은 남북 언어 통합을 목표로 편찬하고 있는 사전으로, 이 사전에는 20세기부터 현재까지 남북 및 해외 동포들이 사용하고 있는 낱말 30여 만 개가 표제어로 수록될 예정이다. 2019년 발간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편찬 주체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이다.

참고문헌

- 권재일(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형익(2005), 《심의린 편찬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태학사.
-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문화어건설이론》, 조선어학전서 2.
-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 조선어학전서 16.
-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이운영(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 조재수(2013~), 국어사전 100년을 돌아보다(7~17), gyeoremal.or.kr
- 최경봉(2005), 《우리말의 탄생》, 도서출판 책과함께.
- 한용운(2007), 남북 규범어의 통합 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40, 한국사상문화학회, 301~322.
- 한용운(2013), 남북 사전의 표제어 차이, 《2013년 남북 언어 소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국립국어원, 119~143.
- 홍종선·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